

6. 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

천만군민의 무자비한 총대로 역적패당의 특대형도발행위를 짓몽개버릴것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

최근에 들어서면서 리명박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은 더이상 그대로 방임할수 없는 위험수위를 넘어서고있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전선중부 괴뢰 5군단 3보병사단을 비롯한 전연부대들에서 또다시 나타난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엄청난 중상모독행위이며 우리 체제와 군대를 헐뜯는 의도적인 도발사건이다.

술한 괴뢰군병영들과 초소들, 군사시설물들과 주변도로의 안내간판들과 담장들까지 썩붙이고 내다건 극악무도한 구호들과 현수막들은 오직 역적패당만이 벌릴수 있는 반민족적인 히스레리적광기이며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덤벼드는 무지한 불한당들의 특대형도발이다.

벌어진 사내는 우리의 최고존엄을 함부로 모독하고 신성한 체제를 헐뜯는 호전적이며 악랄한 도전행위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리명박역도와 군부불한당들의 각본에 따라 계획적으로 준비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오죽하면 남조선주민들까지 《경악을 자아내는 처사》로, 《외지인모두의 가슴을 섬적하게 만드는 분별없는 행위》로, 《원색적인 동족대결조장음모》로, 《60, 70년대 전쟁분위기를 회귀시킨 정신병자들의 처사》로 규탄하겠는가.

사태의 심각성은 계속되는 이러한 특대형도발사건이 괴뢰군부의 몇몇 망나니들의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라 역적패당의 《국책》으로, 괴뢰군부호전집단의 반공화국적대결고위 《지침》으로 벌어지고있다는데 있다.

요즘 청와대안에서 리명박역도가 떼없이 쏟아내고있는 골수에 뱀 동족대결악담과 괴뢰국방부 장관 김관진을 비롯한 군고위급들의 근무실에서 꺼리낌없이 벌어지고있는 우리의 최고존엄훼손모의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내외를 경악케 하는 역적패당의 이 모든 극악무도한 반민족적, 반공화국대결망동을 천추에 용납 못할 만고대역죄로, 우리에게 불집을 걸어온 로팔적인 군사적도발로 비상사건화하지 않을수 없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천만군민의 지시는 분노와 복수심을 반영하여 지금 이 시각부터 민족앞에 특대형범죄만을 덧쌓고있는 역적패당의 무분별한 처사를 우리에게 대한 새로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해당한 군사적보복조

치를 취하게 될것이다.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쉼치지원수가 바로 리명박역적패당이며 오직 총대로 쓸어버려야 할 반역의 무리가 다름아닌 괴뢰군부호전광들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취하는 강력한 군사적보복조치는 역적패당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우리의 체제와 군대를 헐뜯는 갖가지 행위들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고 민족앞에 사죄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단행되게 될것이다.

북남관계선에서 지금까지 취해온 우리 군대의 동포애적인 군사적보장조치들은 괴뢰당국과 군부호전광들에 대한 우리 식의 강한 제재조치로 전환될것이다.

천하에 들도 없는 대결광신자들이 우리에게 전쟁까지 불사하는 극단의 도발을 감히 걸어온 이상 북과 남사이에는 오직 불과 불이 오가는 물리적결산만이 남아있다.

대결광신자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준엄한 총대맞이 어떤것인가를 이제부터 똑똑히 알게 될것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서 솟구치는 천백배의 보복일념을 막을수 없다.

우리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체제를 거부하다 못해 무엄하게도 하늘에 샅대질하는 불망나니들에게 차례질것은 민족의 준엄한 철주뿐이다.

우리 천만군민은 무자비한 보복총대로 역적패당의 분별없는 특대형도발행위를 짓몽개버리고 온 겨레가 바라는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기어이 앞당겨 성취하고야말것이다.

주제 100(2011)년 6월 29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변인성명

최근 남조선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괴뢰군 《백골부대》를 비롯한 전방부대들에서 우리 군대와 우리 체제, 우리 존엄을 극악무도하게 중상모독하는 구호들을 내걸고 극단적인 반공화국적대결을 고취하고있는 사실이 언론들에 의해 또다시 폭로되었다.

그 구호들의 내용은 너무나도 험악하여 내외를 경악시키고있다.

리명박패당이 우리의 체제와 존엄을 건드리는 《표적사건》을 도발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천추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망동을 감행한데 대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치솟는 격분과 증오를 금치 못하고있으며 불타는 적개심과 복수심을 하늘에 달고있다.

지금 역적패당의 속동에는 오직 우리 체제와 존엄에 대한 적대와 대결광기만 짝 들어차 있다.

얼마전 리명박역도가 청와대에 괴뢰국회 국방위원회 소속들을 끌어들여 연평도사건에 대해 그 무슨 《천추의 한》이니, 《울화통이 터진다.》느니 하고 지껄여댄것은 그들이 대결에 얼마나 미쳐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이번 특대형도발사건 역시 몇몇 괴뢰군부 불한당들의 개별적행위가 아니라 그 장본인은 다름아닌 리명박역도와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이다.

우리는 괴뢰패당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리는 《표적사건》을 도발하였을 때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의지를 선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패당이 이번에 더욱더 극악한 도발행위를 감행한것은 우리에게 대한 정면도전으로서 명백한 선전포고이다.

우리는 리명박패당이 감히 우리에게 전쟁을 불사하는 극단의 도발을 걸어온 조건에서 도발

에는 단호한 징벌로, 전쟁에는 무자비한 보복성정으로 대답해나설것이다.

우리 체제와 존엄을 모독하는자들은 결코 이 땅우에, 이 하늘아래에 살아남지 못할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는 대결미치광이들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심판할것이며 이미 경고한대로 전군, 전민, 전민족적인 보복성전으로 이 땅에서 역적패당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할것이다.

리명박패당은 이번 극악무도한 도발행위에 대해 당장 사죄하고 주도자들을 엄벌에 처하며 무분별한 대결광판을 걸어치워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상할수 없는 파국적후과를 면치 못할것이다.

주제 100(2011)년 6월 28일
평 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 《천만군민의 무자비한 총대로 역적패당의 특대형도발행위를 짓몽개버릴것이다》를 6월 29일과 30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대변인성명을 발표하여 남조선 전연부대들에서 조선의 최고존엄을 엄중히 중상모독하는 구호들을 내다건것과 관련하여 이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해당한 군사적보복조치를 취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AP통신은 조선인민군이 남조선군 전연부대들에서 조선을 반대하는 구호들을 내다건데 대해 보복할것을 다짐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성명은 남조선 전연부대들의 병영들과 초소들, 군사시설물들과 주변도로의 안내간

판들과 담장들까지 조선의 최고존엄과 체제, 군대를 악의에 차서 중상모독하는 구호들을 내다건데 대하여 지적하고 이것을 조선에 대한 로팔적인 군사적도발로 략인하였다.

성명은 북남관계선에서 지금까지 취해온 조선군대의 동포애적인 군사적보장조치들은 남조선당국과 군부에 대한 강한 제재조치로 전환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국의 AP통신은 조선인민군이 남조선군 전연부대들에서 조선을 반대하는 구호들을 내다건데 대해 보복할것을 다짐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

변인은 성명에서 남조선이 조선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조선의 체제와 군대를 헐뜯는 갖가지 행위들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고 민족앞에 사죄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군사적보복조치를 취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대변인은 이러한 특대형도발은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덤벼드는 무지한 불한당들만이 벌릴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도쿄신보》도 《조선남조선에 군사적보복 경고》 등의 제목으로 대변인성명의 요지를 전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의 도발에 무자비한 보복성전으로 대답해나설것이라고 경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변인성명을 6월 29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정부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여 최근 남조선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백골부대》를 비롯한 전방부대들에서 조선 군대와 체제, 존엄을 극악무도하게 중상모독하는 구호들을 내건 사실이 언론들에 의해 폭로된데 대해 지적하였다.

성명은 남조선당국이 조

신의 체제와 존엄을 건드리는 《표적사건》을 도발한데 이어 또다시 천추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망동을 감행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정면도전으로서 명백한 선전포고이라고 단정하였다.

리명박 《정부》가 조선에 극단의 도발을 걸어온 조건에서 도발에는 단호한 징벌로, 전쟁에는 무자비한 보복성전으로 대답해나설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성명은 리명박 《정부》가 이번 행위에 대해 당장

사죄하고 주도자들을 엄벌에 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상상할수 없는 파국적후과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라이신문 《방코크 포스트》, 필리핀신문 《마닐라 불레틴》, 미국의 VOA방송, 영국의 BBC방송, 일본의 지지통신도 조선이 남조선의 도발에 무자비한 보복성전으로 대답해나설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본사기자

로동기본권 쟁취하자, 리명박 《정권》 심판하자

남조선의 금융로조원 2만여명 반 《정부》투쟁, 건설로조원 1만 5 000여명 생존권쟁취투쟁 전개

남조선의 《한국로총》 소속 금융로조가 6월 22일 서울시청앞광장에서 금융업을 파국으로 몰아가며 로동자들의 삶을 엄중히 위협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여기에는 남조선 전지역의 은행들을 비롯한 금융부문에 종사하는 로조원 2만여명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한국로총》위원장 리용득, 금융로조위원장 김문호, 민주로동당 대표 리정희 등이 발언하였다.

발언자들은 리명박세력이 집권 첫 시기부터 금융업계를 독차지하기 위해 자기의 측근들을 요직에 대대적으로 임명하는 독재적망동을 서슴지 않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리명박과 인맥관계에 있는자들의 독재적경영에 의해 금융업이 전례없는 위기에 처하고 이 업체들에 종사하는 로동자들이 지난 3년간 임금을 동결, 삭감당하는 불행을 겪고있다고 그들은 개탄하였다.

그들은 한마디로 리명박집권 전기간은 다시는 떠올리고싶지 않은 끔찍한 날이었고 하면서 현 《정부》를 심판하려는 로조원들의 열의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수패당의 반민중적악정속에서 참을대로 참아왔다고 하면서 그들은 금융업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로동자들에게 굴종만을 강요하는 《정부》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들은 다음해선거들에서 독재세력을 반드시 심판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 * 남조선의 민주로총소속 건설로조가 6월 22일 서울시청앞광장에서 로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리명박역적패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전지역의 건설업체들에서 일하는 로동자 1만 5 000여명이 《인간답게 살고싶다》, 《로동기본권 쟁취하자》, 《로조란압 분쇄하자》 등의 구호관들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민주로총위원장 김영훈, 건설로조위원장 김금철 등이 발언하였다.

발언자들은 재벌들의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전지역의 건설현장들에서 수많은 로

동자들이 죽고있다고 개탄하였다.

하지만 당국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그 무슨 국제적기준의 부합에 대해 떠들며 재벌들의 배만 채워주는 데 피눈이 되어 돌아오고있다고 그들은 규탄하였다.

그들은 또한 당국과 업주들이 로동자들의 밀린 임금을 주지 않고 가혹한 로동을 강요하면서 로조에 대한 탄압을 일삼고있는데 대해 단죄하였다.

로동자들은 더이상 참고있을수 없으며 친재벌정책에 눈이 어두운 리명박 《정권》

에 맞서 투쟁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임금인상과 로조법 전면개정,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저지, 로조란압분쇄를 위한 민주로총의 대규모투쟁에 건설로동자들이 적극 합세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건설로조단결투쟁, 생존권을 쟁취하자!》, 《우리는 로동자다, 로동기본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웨쳤다.

집회에서 결의문이 낭독되었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시위행진을 나섰다.

시위자들은 파쇼경찰들의 폭압속에서도 로동자들의 생존권을 버랑끝으로 물아가는 리명박 《정권》을 심판하자고 웨치며 완강히 싸웠다.

본사기자

관광객들을 인간방패로 삼으려는 대결책동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발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최근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백령도,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개 섬을 국제관광지로 개발하는것을 팔자로 하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라는것을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6월 30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974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보수패당이 2020년까지 10년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서해 5개 섬을 해양관광과 국제평화의 《거점》으로 만들며 연평도에 《안보관광지》를 꾸리겠다고 떠들고있는데 대해 폭로하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가장 첨예한 수역인 서해

5개 섬과 그 수역을 관광상 품화하겠다는것은 화약고우에 놓이장을 만들겠다는것이나 다름없는 위험한 장난이라고 지적하였다.

보도는 괴뢰패당이 서북도 서방위사령부라는것까지 조작하면서 그 무슨 《국제관광지》요 뭐요 하는것은 내외여론에 대한 우롱이고 우리에게 대한 또 하나의 도발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괴뢰패당이 서해 5개 섬을 국제관광지로 만들려는것은 저들의 범죄적인 북진전쟁준비책동을 가리우고 불법무법의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을 기정사실화하며 서해

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공인 받아보려는것이다.

특히 괴뢰호전광들의 광란적인 전쟁소동으로 불안과 공포에 떠는 섬주민들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의 민심을 가라앉히며 이 지역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까지 끌어들여 인간방패로 삼아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결해보려는 데 그 흉악한 목적이 있다.

보도는 전쟁에는 자비가 없고 관광지라고 무시할수 없다고 하면서 서해 5개 섬에 대한 관광개발놀음은 내외의 비난과 배격으로 수치스러운 파탄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본사기자



반역 《정권》 심판을 위한 범국민적 항쟁을 선언

남조선의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준비위원회가 6월 24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최저임금인상과 반값등록금실현 등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리명박 《정권》이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반민중적악정으로 민생을 파탄시킨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들은 당국의 이러한 행위를 더이상 앉아서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반역 《정권》심판을 위한 범국민적항쟁을 전개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기자회견문이 낭독되었다.

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로동자들이 비정규직로동자로 전락되고 대학졸업생들속에서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국민의 생활처지가 극도로 악화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이 모든 책임은 리명박 《정부》에 있다고 하면서 회견문은 당국이 최저임금인상과 반값등록금실현을 비롯한 민중의 절박한 요구를 받아들일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하라! 반값등록금 실현하라!》고 외쳐진 현수막을 들고 민중의 요구가 담긴 항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의 시위행진을 벌였다.

본사기자

조국통일3대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자

역사적인 7.4공동성명 발표 39돛을 맞으며

역사적인 7.4공동성명이 발표된 때로부터 39돛이 되어온다.

돌이켜보면 주제 61(1972)년 7.4공동성명의 발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길에 바친 아버지수령님의 불면불휴의 애국적 헌신과 로고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1970년대로는 내외정세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폭넓은 북남협상방향을 제시하시어 북과 남사이의 교류급정치회담을 마련하시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을 발표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북과 남이 7.4공동성명을 통하여 확고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7.4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

서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우리 겨레는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 나갈수 있게 되었다. 참으로 7.4공동성명의 발표는 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주고 온 겨레에게 통일의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역사적 사변이었다.

지난 39년간 공화국은 7.4공동성명의 리념을 귀중히 여기면서 그를 리행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벌려왔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한 가장 현실적이고 공평정대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민족대단결5대방향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해온 사실이 이것을 실증해준다.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로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강고하고도 자랑찬 투쟁과정에 우리 겨레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받아안게 되었다.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열리고 북남관계발

전과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우리 민족은 어떤 어렵고 복잡한 정세가 조성된다 해도 조국통일3대원칙을 철저히 의거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기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21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다.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과 그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그 리행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반동일세력들의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반전평화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 고나가야 한다.

오늘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이 외세와 야합하여 감행하고있는 위험천만한 북침정감도발소동은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반전평화투쟁의 불길게 세차게 지퍼올릴것을 요구하고있다.

해례의 온 겨레는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고있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파라시키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전쟁의 근원으로 되는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나가기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진정으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주의주장을 앞세우지 말고 민족공동의 리익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이 땅위에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윤현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명언은 민족분열로 하여 겨레가 당하는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사람이 오늘을 참된 애국자라는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애국은 민족성원들의 가장 신성한 사상감정이다.

조국을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을 애국심이라 하며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고 살며 싸우는 사람을 애국자라고 한다.

분열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조국을 떠난 참된 애국이란 있을수 없다. 통일을 위하여 투쟁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사람이 참된 애국자이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다이상 미물수 없는 지상의 과업이다. 통일만이 우리 민족의 살길이다.

성스러운 통일에국위엄에 이바지하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성원들이 자기의 진정한 삶의 가치와 보람에 대해 말할수 없고 려사와 후대앞에 떳떳할수 없다.

우리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여 하나의 강토 위에서 반만년의 유구한 려사를 창조하며 하나의 피줄을 순결하게 이어온 단일민족이다.

그러나 우리 겨레가 외세와 강요한 국도량단과 민족분열로 하여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해 온지도 벌써 60년이 넘었다. 하나의 피줄을 나눈 부모형

제들이 서로 북과 남으로 헤어져 남남처럼 살아오는 비극적인 현실.

이 민족분열의 비극은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 조선 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사람이면 누구든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일신의 안일과 부귀만을 생각하면서 분열의 비극, 겨레의 통일운동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값없는 삶에 지나지 않을것이다.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이다.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는 민족운명개척의 참된 길을 밝혀주는 이 고귀한 명언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강명일

북남공동선언들의 고수, 리행을 호소

얼마전 일본 도쿄에서는 미국과 일본에 있는 동포인민들인 《민족통일》, 《통일평론》, 《조선신보》 등에서 활동하고있는 언론인들이 모여 《6.15선언발표 11돛기념 학술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조선신보》 편집장은 북남관계악화의 원인이 리명박 《정권》의 반민족, 반동일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남조선당국이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거역하고 《금문사태》니, 《베를린선언》이니 하면서 량

측은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며 희망의 표대라고 하면서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고수, 리행할때 대하여 강조하였다.

호소문은 또한 우리 민족끼리기치밑에 온 민족의 련대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운동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민족의 힘을 믿고 북과 남의 동포들과 함께 지혜와 슬기를 모아 굳게 단합하여 반동일, 반민족세력들을 압도해나갈것을 강력히 호소하였다.

본시기자



남조선청년학생들 6.15공동선언리행을 위해 통성투쟁

《유신》 독재자보다 더한 반동일대결분자

올해 초간장상대에 놓여있다. 북남관계가 오늘과 같이 한치안도 내다볼수 없는 파국에 처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통일로 향한 민족의 거세한 전진을 가로막고 외세와 야합하여 북남대결과 전쟁책동에 매달려온 리명박보수 《정권》의 반민족, 반동일책동의 필연적결과이다.

남조선의 보수당국이 조국통일3대원칙의 정신을 관폭하게 짓밟으며 대결책동을 벌린것도 그 죄악중의 하나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려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초에는 조국통일3대원칙이 놓여있다. 2000년의 4.8합의서에는 북과 남이 7.4북남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재확인한 기초우에서 북남최고위급회담을 가진다는데 대해 명백히 밝혀져있다.

역사적인 평양성에서 채택된 우리 민족끼리를 핵으로 하는 6.15북남공동선언도 이미 수십년전 온 겨레와 세계가 지지찬동한 조국통일3대원칙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있다.

그런데 리명박은 집권하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함으로써 조국통일3대원칙도 짓밟았다.

1972년 삼천리를 통일의 벽한 환희로 잠기게 했던 조국통일3대원칙

의 통일행사도 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친북리세력》으로 매도하고 대대적인 탄압선동을 일으켰으며 모략적인 《간첩사건》들을 연이어 조작하며 남조선인민들속에 국도의 반공화국적대의를 고취하였다. 지어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까지 《산보교육》의 미명하에 동족대결의 악을 주입시키기 위해 날릴것이 보수패당이다.

역사적인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을 부정말살하기 위한 리명박 《정권》의 범죄적인 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완전 결판나고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의 길에는

3년 수개월간 북남사이에는 대화다운 대화가 단 한번도 진행되지 못하였고 겨레에게 감동을 주는 어떠한 합의문도 채택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이젠 시기 북과 남사이에서 마련된 귀중한 통일의 성과물마저 모조리 말아먹은것이 리명박 《정권》인것이다.

남조선보수패당이 저지른 엄청난 반민족, 반동일책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로 용서될수 없다.

우리 민족은 동족대결광신자들을 쓸어버리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 밝혀준 길을 따라 통일의 새 아침을 반드시 안아올것이다.

김철민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리는자들의 종착점은 파멸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남조선피뢰패당이 총과 산에 직면한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지행해보려고 발악하고있고있고 관련하여 6월 2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였다.

대변인은 리명박역도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천영우, 피뢰통일부 장관 현인택을 비롯한 반동일대결광신자들이 저마다 나서서 《북남관계에서 확고한 자세》니, 《일관된 북북정책》이니, 《대북정책기초에는 변화가 없다.》니 뭐니 뭐니 하는가 하면 그 누구의 《변화》를 운운하면서 《선해포기》니, 《개방》이니 하는 허튼 나발을 계속 불어대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특히 피뢰역도는 6.15공동선언발표기념일에 통일행사에 참가하지 않고 진보세력을 탄압하면서 공동선언을 가장 악질적으로 반대하는 반공화국모략군들을 청와대에 끌어들여 쟁고 하시며 추태를 부렸는가 하면 이날을 플라 서해 5개 섬의 전쟁준비를 위한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라는것을 조작하고 그 누구의 《도발에

한 철저한 응징》을 려설하는 《축사》를 보내는 늙음을 벌렸다.

그런가하면 이른바 《대통령》자문기관이라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회장자리에 보다 악질적인 반공화국대결분자를 들여앉히고 통일부산하 통일교육연구원 원장자리에 추악한 인간세력을 올려앉히는것으로 내외여론에 도전해나갔다.

더우기 리명박역도가 그 무슨 《통일이 도적처럼 한 밤중에 울수 있다.》는 악담을 꿰뚫은 우리 체제와 존엄에 대한 정면도전으로서 천추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 망동이다.

대변인은 피뢰패당이 안팎으로 고립되고 궁지에 몰리게 되자 최근 북남비핵화회담과 《친안》호, 연평도사건은 별개라고 하면서 《분리대응》을 떠들고있지만 이것은 조미대화와 6자회담에게 제동을 걸어보려는 오그랑수로서 그러한 잔재에 넘어갈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고 대답하였다.

지금 피뢰패당은 대양건너 미국상전에게 줄을 서서 찾아가 저들의 립장을 지지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게 빌던

서 애걸하고있으며 피뢰역도는 매일과 같이 청와대에 자기 족속은 물론 여느때에는 돌이도 보지 않던 간계 인사들을 불러들여 먹자판을 벌리고 《기념록》까지 선사하면서 자기를 알아달라고 추파를 던지고있다.

하지만 역도의 그따위 역겨운 늙음은 사회적비난만 받고있으며 누구도 리명박역도와 운명을 같이하려 하지 않고있다.

대변인은 오늘에 와서 리명박역도가 의지하고있는것은 조국통일부 장관 현인택이와 겨레의 몇몇 안되는 반동일미치광이들뿐이라고 하면서 피뢰패당의 대결정책은 이미 거덜이 날대로 났으며 그에 계속 매달리는것은 자신들의 파멸을 재촉하는것으로 돌변이라고 지적하였다.

대변인은 리명박패당은 대결정책의 종착점에 무엇이 있는가를 똑바로 보고 분별없이 늘어대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도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변인은 이러한 행위가 리명박역도와 같이 남의 주머니를 노리는 장사와 도적질, 모략질에 상관이 되지

않고 동족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골수에 차넘치는 남조선 현 보수집권세력의 대결과 전쟁책동이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있는 속내에 며칠전 남조선의 통일부가 이른바 《통일교육교재》로 발간한 2종의 도서가 내외의 주목을 끌고있다.

이 책들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누구의 《군사적 도전행위》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공동체 건설》이니, 《3대변화(화)》이니 하는 따위의 동족대결과 《흡수통일》 야망으로 가득 차있다. 국악한 대결분자인 현인택이 직접 나서서 몇달씩 수정작업을 해가며 《바람직한 대북관, 안보관, 통일관을 정립할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이 도서들은 통일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립장과 자세, 동족을 대하는 태도, 그들이 주입시키려 하는 《통일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있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흡수통일》의 망상에 사로잡힌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흥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6월에만도 현인택은 위만한 협의가 있다고 떠벌이며 이러한 폭거를 감행하였던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남조선강원도 지역 시민사회 최단세원들은 이번 수색소동은 위기수습을 위한 역적패당의 정치적이며 계획적인 탄압이라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본시기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대로 된 북남관계를 위해 북도 맞추듯 《통일은 산사태처럼 갑자기 찾아온다.》고 확실히 수설하여 겨레의 격분을 자아냈다.

이른바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떠들며 집권초기부터 감행해온 그들의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오늘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

북과 남사이에서 화해와 협력사업이 중단되고 금강산 관광과 휴머니티 관광, 친척들의 상봉이 가로막혔으며 통일행사들이 진행되지 못하

고있다. 외세와 야합한 남조선호전세력의 군사적도발로 말미암아 연극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는 조진반도를 세계가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고있다.

하기에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과 세계는 북남관계를 오늘과 같은 파국상태에 몰아넣음으로써 민족안에 앓을수 없는 죄악만을 덧씌우고도 계속 북남대결에 미쳐달리느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끝없는 저주와 규탄을 퍼부었고있으며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을 당장 경어치울것을 요구하였다.

이까지도 민족의 버림을 받은 정적승장 현인택을 비롯한 대결광신자, 민족반역자, 인간세력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 하여 안팎으로 궁지에 몰린 저들의 대결정책을 지행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현 집권자야말로 가련하기 그지없다.

공화국정부는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모독하는자들은 결코 이 땅위에 살수 없다고 엄숙히 천명하였다.

지속으로 가는 지름길로 미친듯이 달려갈수록 파멸의 시각이 앞당겨질뿐이다.

김윤철

조선반도에 핵전쟁위험이 대두하고있다

로씨야신문이 경고

로씨야신문 《브레즈네프》에 《조선반도상황이 격화되고있다》라는 제목으로 리명박역적패당의 반공화국책동을 비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로부터 리명박피뢰패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에 풍기부를 쟁기 위한 거족적이며 입버릇처럼 쟁고

우려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등 리명박역적패당이 감행하고있는 반공화국도발책동들을 폭로하였다.

본시기자



역적패당의 부당한 탄압소동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6월 19일 남조선경찰당국이 인터넷에 《리적표현물》을 올렸다는 혐의로 6.15공동선언실천 남취위원회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역적패당의 탄압소동과 안동지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정적세력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였다.

또한 남조선의 피뢰공안세력이 《보안

법》을 걸고 6월 23일 이전 강릉청년회 회장이었던 권병성 등 3명의 집에 달려들어서 수색소동을 일으키며 폼피러와 문건, 책 등을 압수하고 그들에게 경찰을 출두할것을 강요하였다.

파쇼광들은 그들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서 활동하는

본시기자

최근 만수대창작사에서 창조한 음악과 모래그림이 극장에서 첫선을 보였다.

공화국의 판독있는 예술단체의 창조하고도 훌륭한 연주와 진행되는 속이 미술가가 모래 그리는 각종 그림들이 무대영상에 비쳐지는 공연은 시작부터 사람들의 폭풍같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신동하다, 멋있다 하고 연방 탄성을 터뜨리는가 하면 마음의 금선을 울리는 장면에서는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하였다.

새로운 무대에 출몰류인 음악과 모래그림은 21세기 초에 창조된 것이다. 그것을 공화국에서 자기 식으로 받아들여 발전시키기 시작한 것이



얼마전 음악과 모래그림작가들을 찾아 만수대창작사로 갔을 때였다. 현지에서 창작에 여념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미묘하게 바라보는데 강은주녀사미술가의 창작속도가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세련되고 부드러운 손동작으로 순수 모래만을 가지고 유리구에 마음먹은대로 여러가지 그림들을 그려가는 광경은 볼수록 신기하기만 했다.

그런 우리에게 강은주미술가는 음악과 모래그림을 창작하는 나날에 있었던 잊지 못할 사연들을 들려주었다. (유리구에 그려졌다가 한

우리 식의 새 무대예술—음악과 모래그림

다. 이것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공화국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있다.

만수대창작사의 재능있는 미술가들은 한 작품을 창작하는데 보통 1년이상 걸린다는 세계적인 기록을 깨뜨리고 첫걸음을 뗀지 두달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독특한 무대예술종류를 완성하여 무대에 올렸다.

《공연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 식이라고 호평하고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선회화를 보는듯 한 향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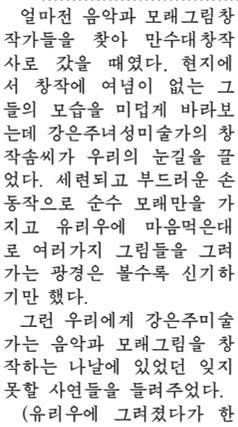
인 맛이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창작가로서 우리의 것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게 됩니다.》

음악과 모래그림작품들의 총연출을 담당한 김학림은 감회를 안고 말한다. 새 생명의 출생이 모진 진통을 동반하듯이 음악과 모래그림은 미술가들의 고집이 띠어준 결과물이다. 한마디로 조선회화를 보는듯 한 향토적

만수대창작사에서는 재능

있는 신진미술가들로 창작 집단을 꾸리고 음악과 모래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창조활동을 힘있게 벌였다. 연출가 김학림과 강은주, 김영아, 김규권, 김창혁미술가들은 세계적발전추세를 깊이 연구한데 기초하여 새로운 형상수법을 창조하는데 온갖 지혜와 정열을 바쳤다.

그들은 밤을 새우며 불타는 창작활동을 벌여 두달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여러편의 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무대예술의 새 경지를 개척하였다.



재능있는 여성미술가

순간에 자취를 감추고마는 모래작품이 후세에 남을 창작물이 될수 있을까.) 한때 이런 생각도 없지 않



고 선명하면서도 생동하고 정서적이면서도 리듬감이 나는 조선회화기법의 묘미를 바탕으로 한 우리 식의 음악과 모래그림작업에 성공할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나라들에서 해오던 방식과는 달리 두명이 함께 출연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화면에 두 인물의 생활을 따로 펼쳐나가기도 하면서 작품의 서정성과 리듬감을 높일수준에서 훌륭하게 형상해내곤 하는 강은주미술가의 음악과 모래그림은 보는 사람마다 경탄을 자아내고 있다. 본사기자 박원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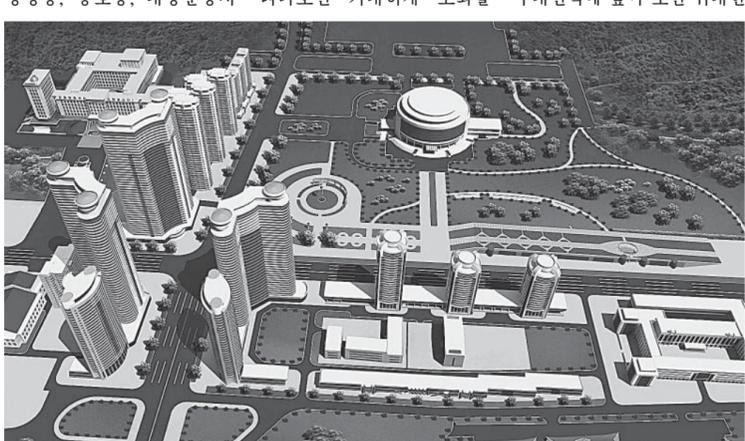
볼라보게 변모되는 만수대지구

—만수대지구건설의 휘황한 설계도—

새롭다. 도로양쪽에 건물들을 울라리식으로 비좁게 세우던 종래의 형식과 달리 건물배치를 여러가지 형식으로 하여 웅장화려하게 해준다. 경상동, 종로동, 대동문동지

구에 일떠서는 고층살림집들의 층수가 점차적으로 높아 지다가 창천네거리에 이르러 쌍원동식의 초고층으로 집중됨으로써 만수대언덕에서 내려다보면 거대하게 조화를 이루며 형성된 건물들이

볼라보게 변모되는 만수대지구 건설의 휘황한 설계도



인간생활에서 친근감을 안겨주는 말은 참으로 많다. 《행복》, 《기쁨》, 《사랑》, 《우정》... 그중에서도 《어린이》라는 말은 사람을 누구에게나 친근하고 행복함 부름으로 들려온다. 하기에 예로부터 어린이는 즐거움의 샘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어린이, 조용히 불러보면 기쁨과 웃음이 가슴그 두리 차오르는 이 말과 더불어 공화국에서는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이 꽃피어나는 것인가. 얼마전에 맞이한 국제아동절에도 사람들은 어린이들의 행복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들이 자식들을 짐승처럼 다루면서 그들에게 별로 짐짓 승의 배설물까지 강제로 먹이는 기막힌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서로 다른 부름말을 두고

회의 풍조와 료리, 전도가 비끼는 법이다. 《가정교양》이라는 말이 악행의 대명사로 되어버린 사회, 《교양》 때문에 자라나는 후대들이 제 부모에게서 정신뿐 아니라 육체까지 강그리 잃게 되는 사회가 《문명》을 자랑하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한마디에 가리워지고있다. 언제인가 일본의 한 현에서는 몇년전에 자기의 어린 딸들을 교활한 방법으로 죽인 30대의 여성이 막내딸마저 죽이려고 한 사건이 밝혀져 사회를 크게 놀래웠다. 그에 뒤질세라 어느 한 현에서는 어머니라는 여성이 6살난 자기 아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여 살해하였다고 한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아버지가라는 사람이 딸애가 오줌을 가리지 못한다고 때려죽이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또한 부모

들로 되고있는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이다. 《가정교양》이라는 말이 악행의 대명사로 되어버린 사회, 《교양》 때문에 자라나는 후대들이 제 부모에게서 정신뿐 아니라 육체까지 강그리 잃게 되는 사회가 《문명》을 자랑하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어린이는 가정의 웃음꽃이고 나라와 민족의 래일이다. 어린이들의 웃음소리 높은 인간중심의 공화국은 미래가 창창하다. 본사기자 김춘경

공화국의 미술가들이 그린 모래그림에는 힘있고 아름답고 고상한 조선회화의 특징이 잘 살아나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인민들의 절절한 그리움의 세계를 잘 형상한 음악과 모래그림 《장군님을 그리며》에서 밤 12시를 가리키는 평양역장면과 축포가 터져오르며 황홀경을 펼치는 류정호호텔장면은 종이위에 그린 그림을 보듯이 아주 생동하다.

18세기에 창작된 고전소설 《홍부전》을 각색한 음악과 모래그림 《홍부와 놀부》에서는 마음씨 착한 동생 홍부와 그의 안해가 커다란 박을 쪼는 모습이며 욕심 많은 형 놀부가 노는 꼴을 조선회화의 기법들로서 마치 눈앞에 살아 움직이는듯 재미있고 생동하게 형상하여 보여주고있다.

최근에 창작되어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속에서 인기를 끌고있는 노래를 가지고 형상

한 《우리 집사람》에서 아름다운 처녀가 재대군인총각에게 꽃다발을 주는 장면과 귀여운 딸애의 손목을 잡고 해빛찬란한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다정한 부부의 장면은 아주 인상적이고 형상이 좋아 사람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공화국에서 창조된 음악과 모래그림은 종이나 천위에 그려는 그림과 달리 선과 명암이 뚜렷하지 못하고 리듬감과 형상력이 떨어지는 부족점을 극복하여 선명하면서도 생동하고 정서적이면서도 인상깊게 창작된 독특한 무대예술작품이다.

공화국의 음악과 모래그림은 또한 사상에술성이 풍부하고 인식교양적의의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미술가의 순수 특이한 예술적기교나 흥미반위로 나가는것이 추세로 되고있다.

하지만 공화국에서 창조된



음악과 모래그림작품들은 모두 제목과 주제부터 시대성이 있고 철학성이 있으며 아름답고 참신한 형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옹은 인생관을 새겨주고 애국애족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음악과 모래그림 《말해주리 병사의 사랑을》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작품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인민군인들의 고결한 삶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선군시대의 인생관을 따라배워 기어이 이 땅위에 강성국을 건설할수 있도록 하는 결의를 가다듬게 하고있다.

공화국의 음악과 모래그림에는 이외에도 개별적인 연주가의 단독연주나 기성곡을 특색있게 들려놓고 하는 다른 나라의것과는 달리 수심명으로 된 악단이 무대

음악과 모래그림은 음악과 미술의 특이한 결합으로서 21세기에 갖 창조된 새로운 무대예술종류이다.

음악과 모래그림이란 미술가가 음악에 맞추어 유리관우에서 모래를 가지고 여러가지 그림을 그리는 동시에 그것을 활영기를 통하여 투영기로 영사막에 비쳐 얻어지는 생동하면서도 독특한 화폭을 말한다.

마차의 화가에 의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음악과 모래그림은 날로 발전하는 인간의 사상감정과 미학정서적요구를 반영하여나오는것으로서 현재 음악과 미술이 결합된 독특한 면서도 인기있는 새로운 예술형식으로 되고있다.

음악과 함께 영사막에 비쳐지는 특이한 영상, 다시

본사기자 박금일

우에 출연하여 미술가와 직접 교감하면서 공연하며 두 명의 미술가가 두 기대를 가지고 나와 환화면에 서로 대조되는 내용의 그림을 그려가나 하나의 그림을 합쳐 그리는 등 독특한 형식들이 많은 것으로 하여 더욱 새로운 느낌을 안겨준다.

음악과 모래그림 《우리 집사람》과 《홍부와 놀부》 두 작품에 출연하여 관중들속에서 인기를 끈 처녀미술가 김명아(25살)는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속담에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첫 선과에 자만하지 않고 계속 분발하여 훌륭한 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세계에 우리의것을 소리치며 자랑하겠습니다.》

공화국의 미술가들의 나이는 평균 20대이다. 그들은 강성국가의 대문이 열리는 다음해에 세상을 깜짝 놀래울 음악과 모래그림작품들을 내놓기 위해 지금도 창작에 전념하고있다.

본사기자 박금일

말하여 모래를 리용한 출연자의 뿌리기, 밀기, 긁기, 찍기, 놓기, 따내기, 지우기 등의 다양한 수법을 통하여 쉬임없이 새롭게 펼쳐지는 그림들은 관중속에서 지금껏 체험해보지 못한 신비로운 시각, 청각의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다른 그림에는 없는 독특한 형상수단과 수법으로 특색있는 화폭을 창조하는것으로 하여 예술공연이나 개관식, 개막행사, 연회같은 행사장들의 분위기를 돋구는데 많이 리용되고있다.

공화국에서 새롭게 창조한 음악과 모래그림은 기교를 살리면서 사상에술성을 결합하여 흥미가 있고 인식교양적의의 또한 크다. 본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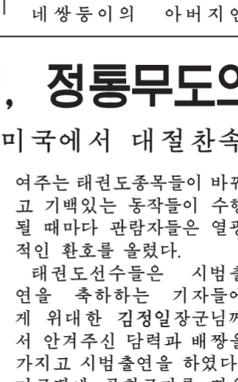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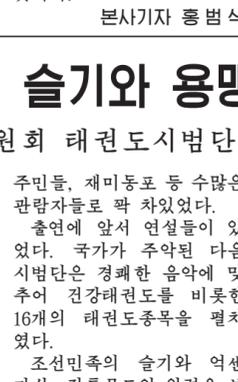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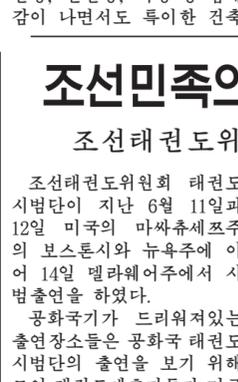
조선민족의 슬기와 용맹, 정통무도의 위력 과시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시범단 미국에서 대절찬속에 시범출연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시범단 미국에서 대절찬속에 시범출연

주인들, 재미동포 등 수많은 관람자들로 꽉 차있었다. 출연에 앞서 연설들이 있었다. 국가가 주악된 다음 시범단은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건강태권도를 비롯한 16개의 태권도종목을 펼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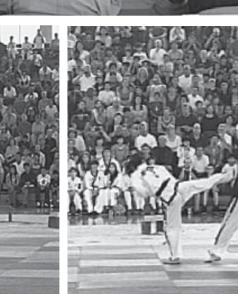
여주는 태권도종목들이 바뀌고 기백있는 동작들이 수행될 때마다 관람자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올렸다. 태권도선수들은 시범출연을 축하하는 기자들에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안겨주시는 담력과 배짱을 가지고 시범출연을 하였다. 미국땅에 공화국기를 띄우고 시범출연을 한다고 생각하니 힘이 솟아났다고 말하였다.



미국에서 대절찬속에 시범출연

미국에서 대절찬속에 시범출연

미국에서 대절찬속에 시범출연



송철호는 《건강한 네쌍둥이를 품에 안은것만으로도 다 보답하지 못한것 같은 행복인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의 금반지와 은장도 그리고 많은 선물까지 받아안고보니 걱정을 금할수 없다.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우리 가정의 영원한 삶의 요람인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이는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겠다.》라고 말하였다.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평양산원문을 나선 네쌍둥이는 황해북도육아원으로 향하였다. 그곳에서 네쌍둥이는 4살이 될 때까지 국가의 전적인 부담으로 자라게 된다. 본사기자

미국에서 대절찬속에 시범출연

미국에서 대절찬속에 시범출연

미국에서 대절찬속에 시범출연

미국에서 대절찬속에 시범출연

고구려의 문화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유적유물

대성동일대의 무덤떼에 대한 조사발굴 및 연구사업 진행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과 조선중앙역사박물관 학술연구집단은 평양시 대성동구리대성동일대에 있는 고구려무덤떼에 대한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연구집단은 여러해동안 이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폭넓고 깊이있게 해명하는데 기여할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대성동고구려무덤떼에는 그림존적이 남아있는 벽화무덤을 포함하여 각이한 구조를 가진 30여개의 무덤들이 있다. 학술연구집단은 단계별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 데 기초하여 이 무덤들에 대한 조사발굴 및 연구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이들의 애국적열의와 헌신적노력에 의해 고구려문화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로대가 마련되었다. 발굴과정에 금귀걸이를 비롯한 귀금속공예품들과 판곳, 판고 등 철제품들, 질그릇과 벽돌 및 기와조각들, 뼈조각들이 나왔다.

대성동무덤떼의 외간으로 된 돌칸흙무덤에서 부분적이기는 하나 붉은색, 푸른색 등 여러가지 색깔로 그린 벽화를 밝혀냈다. 무덤에 남아있는 그림들은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고구려벽화무덤의 내용과 우수한 회화술을 보여

주고있다. 새로 발굴된 금귀걸이 역시 굵은 고리식의 기본고리와 편결고리 그리고 드림장식으로 이루어진 우아하고 정교하며 완성된 조형미를 갖춘 보기 드문 귀금속공예품이다. 특히 돌을세김으로 련꽃무늬를 화려하게 형상화하고 미세한 금알들로 장식한것은 지금까지의 유물들에서 찾아볼수 없는 높은 수준의 것이어서 고구려의 뛰어난 금세공기술의 발전면모를 잘 알 수 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금귀걸이를 비롯한 진귀한 유물들은 민족문화발전에서 차지하는 평양의 전통적지위를 논증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사발굴사업을 통해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 특히 평양 일대 문화발전의 다양한 면모를 밝힐수 있는 고고학적자료들이 새로 알려졌다. 대성동일대의 무덤들은 크게 수혈식과 횡혈식의 돌칸흙무덤으로 나뉘어져있는데 구조와 형태, 크기가 다양하다. 무덤들은 당시 평양에서 살던 고구려사람들의 계급신분관계, 재산소유정도, 생활면모를 알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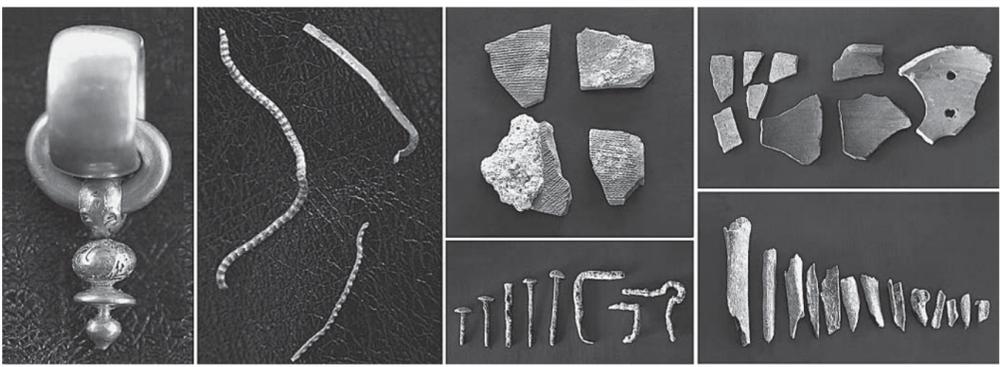
연구집단은 평양을 중심으로 발전한 고구려문화가 백제, 신라, 가야의 문화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수 있는 자료들도 찾아냈다. 지난 시기 칼집에 세일무늬고구려자루칼모양의 장식을 한것은 가야의 고유한 칼집장식형식이 여기에 가야고구려자루칼

의 칼집에 붙어있는 세일무늬고구려자루칼모양장식과 똑같은것이 발견됨으로써 고구려의 칼집장식기법이 가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전해졌다는것을 실물그대로 보여 줄수 있게 되었다.

대성동고구려무덤떼에서 발굴된 모든 자료들은 평양의 문화사적 지위를 밝히고 천년강국 고구려가 세나라사력과 문화

발전에서 중심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논증하는 의의가 큰 자랑할만 한 유적유물로서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본사기자



대성동일대의 무덤떼에서 발굴된 유물들

김일성방송대학 교무부에서 알립니다

김일성방송대학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조국통일관련문건에 친필을 남기신 17쪽을 맞으며 기념특강을 다음과 같이 조직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제목: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민족대단결사상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실현의 위대한 기치

강의시간: 1강의

송출날자: 주제100(2011)년 7월 7일

홈페이지주소: <http://www.ournation-school.com>

전자우편주소(E-mail): schoolmanager@silbank.com

청강생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차문화 (7)

1123년에 송나라사신을 따라 고려에 온 서군은 약한 달동안 고려본진국의 수도 송경(개성)에 머물러있으면서 고려에 대한 기록을 여러가지로 남겨놓았다. 귀국후 그는 고려에 대한 견문내용을 그림과 함께 글을 써서 책으로 출판하였다. 그것이 세상에 유명한 《고려도경》(1124년)이다. 책에서 그림은 떨어져나가 없어지고 현재 글내용만이 남아 있는데 기물(器物)편에 별도로 차조(茶俎)항목을 써 놓았다.

서군은 고려의 차수에 대하여 쓰기를 근래에 고려사람들이 자못 차마시기를 즐겨하여 차도구를 다스리는 데 열성이다. 그런것으로는 꽃과 새가 새겨진 금으로 만든 잔과 비색차잔에 은꽃이개와 물끓이는 작은 가마가 있다고 한 다음 《무릇 연회가 있으면 마당한가운데 가마를 걸고 은제부정을 덮어놓는다. 그리하여 차를 손님앞에 돌려놓은 후에야 비로소 마시는 법이라고 한다. 빨간색 띠자우에 차구

를 벌려놓고 그 우에 붉은 비단보자기를 덮었으며 매일 세번씩 차를 내온다.》고 하였다. 고려본진국에서 외국사신들을 위해 어떠한 술가마에 물을 끓이고 어떠한 차를 달여마셨는가 하는것은 서군이 《은로량정》(은로만든 화로)이라고 표현한데서 잘 알 수 있다. 고려사람들은 차를 귀중한 약재로 복용하였을뿐아니라 하나의 기호품으로, 풍류취미로 마셨다. 고려사람들은 차의 독특한 다례-차도를 통하여 정신적안정과 정신적 여유, 정숙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고려사람들의 차도는 세계사적경지에서 볼 때 매우 높은 경지에 오른 차문화였다.

고려사람들은 차를 귀중한 약재로 복용하였을뿐아니라 하나의 기호품으로, 풍류취미로 마셨다. 고려사람들은 차의 독특한 다례-차도를 통하여 정신적안정과 정신적 여유, 정숙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고려사람들의 차도는 세계사적경지에서 볼 때 매우 높은 경지에 오른 차문화였다.



시화과학원 역사연구소 소장 교수, 박사 조희승

차문화의 기본요소는 차의 맛과 향기, 색깔 그리고 그릇(차잔)감상이다. 고려사람들은 이 모든것을 하나로 융화시켜 높은 단계에서 차문화를 완성하였다. 고려의 차문화에서 놓쳐서는 안되는것이 고려차구의 생산제작과 사용이다. 세상

영할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풍속화는 이미 세나라시기에 높은 수준에 이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있는 고구려무덤들에 그려져있는 벽화들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풍속화는 리조시기인 17세기 이후 김홍도, 신윤복, 김두량, 우진호 등 재능있는 화가들에 의하여 더욱 발전하였다. 풍속화는 해당 사회의 역사연구에 도움을 주는 귀중한 자료로 된다.

풍속화는 화가 같은 시대에 산 각계층 인간들의 민중생활풍속과 사회생활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우리나라의 풍속화에는 당대 사람들의 생산활동, 오락과 놀이, 행사 등 다양한 생활활동과 사회의 각계층 인물들의 풍속을 그린것들이 있다. 풍속화는 인물의 한 형태로서 역사화, 초상화, 전경화 등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있으며 회화의 다른 종류들보다 해당 시기 인간들의 사회적관계를 폭넓게 반영하고 있다. 풍속화는 리조시기인 17세기 이후 김홍도, 신윤복, 김두량, 우진호 등 재능있는 화가들에 의하여 더욱 발전하였다. 풍속화는 해당 사회의 역사연구에 도움을 주는 귀중한 자료로 된다.

인체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18~20℃이며 세면물의 적합한 온도는 5~20℃, 머리를 감는 물의 온도는 50~60℃이다. 빨랫는 물의 적합한 온도는 40~50℃이고 목욕물의 적합한 온도는 34~39℃, 수영장물의 적합한 온도는 32~35℃이다.

혈전증 치료에 특효를 보로키나제

《혈전증으로 견기 힘들고 인어장에 심했는 데 톰브로키나제를 쓰고 깨끗이 나았다.》

《혈액이 굳어 주사침으로 찢러도 나오지 않고 손발이 저렸는데 이제는 피가 맑아지고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

... 조선건강합작회에서 천연혈전용해효소제로 개발한 톰브로키나제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있다.

혈전증치료에 특효를 나타내는 톰브로키나제앞에서는 아무리 고질적인 질병도

맥을 추지 못한다. 발병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대책을 취하지 못하면 고치기 어렵다는 혈전증이건만 10년 지어 15년간이나 운신조차 못하던 많은 혈전증환자들이 톰브로키나제의 덕으로 자리를 털고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놀라운 그 비결은 이 약이 침지링이에서 혈전을 특이적으로 용해시키는 작용을 하는 톰브로키나제를 새로운 특허기술로 분리정제

하여 만든 혈전증 예방 및 치료약이라는 데 있다. 이 약의 개발자의 한사람인 리도일 조선건강합작회사 실장의 말에 의하면 톰브로키나제는 혈전덩어리를 만드는 물질인 섬유소원을 억제하고 섬유소를 녹이는 작용이 매우 강할뿐아니라 피속의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과 같은 물질들을 녹여 피가 맑아지게 하고 맑고 깨끗하게 해준다고 한다. 이런 작용기전으로 하여 톰브로키나제는 뇌혈전, 뇌경색, 심근경색, 간세포암, 중, 특발성피부, 추골동맥순환부전증, 혈액순환장애에 의한 머리아픔, 팔다리저림증, 마비 등에 특이한 효과를 나타내고있다. 국내특허권을 받은 톰브로키나제는 지난해 8월 중국 대륙에서 열린 국제특허기술 및 제품교역회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수여받았다.

본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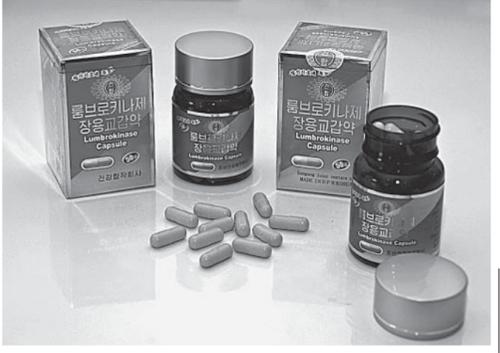
우리 민속

《~거니와》와 《~려니와》 둘 다 두가지 사실을 이어주는 이음도이다. 개별뜻을 보면 《~거니와》는 어느 한 사실을 일단 인정하고 나아가서 다른 사실이나 현상이 더 있음을 나타낸다. 레: 보기도 좋거니와 맛

도 좋다. 《~려니와》는 《~거니와》와 기본적으로 뜻이 같으나 주로 미래나 가정, 추측으로 말하는 경우에 쓰인다. 레: 레일도 가려니와 모래도 가야지. 본사기자

짜꿋기는 구령에 따라 두명, 세명씩 짝을 무으면서 노는 놀이이다. 짜꿋기놀이는 참가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더 재미있다. 놀이에서는 먼저 모든 어린이들이 원 을 짓고 흥겹게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면서 돌아간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 어린이들의 흥겨움이 절정에 오르면 놀이를 조직하는 어린이가 놀이장의 전반상태를

보고 《둘》 혹은 《셋》하고 구령을 준다. 그러면 모든 어린이들은 두명 또는 세명씩 뭉쳐야 한다. 이때 동작이 날래지 못한다. 짜꿋기놀이는 어린이들에게 날랜 몸동작과 정확한 판단력을 키워준다. 본사기자



입맛을 돋구는 부루

부루는 연하고 부드러운 밥을 씹기기에 좋을뿐아니라 여름철 부루쌈은 식욕을 돋우고 더위를 막는데도 좋다. 부루는 물을 갈아대며 씻다가 마지막으로 행구는 물에 기름을 몇방울 떨어뜨려 씻으면 맛이 고소하고 연해진다. 이렇게 씻어낸 부루에

고추장을 바르고 쪽갓과 실파를 한데씩 놓아 싸먹으면 제맛이 난다. 자료가 의하면 부루를 뒤집어 싸먹으면 부드러운 면이 입안과 목을 스치게 되기 때문에 넘기 편안하며 체하지 않는다고 한다. 본사기자

◎ 생선이나 습습한 음식을 먹기 좋아하는 사람은 꼬제를 중요시하고 벗을 사귀기를 즐기며 홀로 행동하기를 싫어한다. ◎ 단음식을 즐기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나 연약하고 담이 작다. ◎ 매운 음식을 즐기는 사람은 사색하기를 즐기고 일에 부딪치면 주권있으며 부드럽게 타이르는 말을 들으나 욕질하면 듣지 않으며 다소나마 남의 병질을 찾아내기를 꺼려하며 사귀기 까다롭다. ◎ 잔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격이 비교적 내성적이고 쉽게 흥분하지 않는다. ◎ 잔음식을 싫어하는 사람은 친근하고 틀이 없고 사

귀기 쉽고 파고드는 정신이 있으며 고생을 이겨내지만 실패하면 쉽게 물러선다. ◎ 찬음식을 즐기는 사람은 대자연에 대한 흥미가 크며 비교적 굳세나 자기를 내세우기를 꺼려하고 사귀기 까다롭다. ◎ 가루음식을 즐기는 사람은 말투가 매우 좋고 사물에 대해 과장하기 좋아하며 의지가 그닥 굳세지 않으므로 쉽게 신심을 잃는다. ◎ 구운 음식을 즐기는 사람은 비교적 일에 열중하고 진취심이 강하며 성미가 급하고 그닥 온화하지 못하며 주권을 내세우기는 좋아하나 일에 부딪치면 인차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본사기자

단편실화소설

추당섬의 꽃 (4)

다음해 나는 군사부무를 위하여 선생님의 슬하를 떠나게 되었다. 나는 그때 코수염도 없는데 선생님의 일신상문체에 끼여드는 건장스렵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얼백번 다시 재어보았다. 마침내 선생님께 이제는 하숙생활을 그만두고 청을 올리는게 제자의 도리에 어긋날수 없다는 나름으로의 판단이 굳어지자 작별의 시간을 기다렸다. 그런데 내가 학교를 떠나던 날 적당한 기회를 노리며 마음을 도스르고있는데 선생님이 여러 밤을 깨워 손수 뜨개바느질로 만들고 수까지 정갈하게 놓은 세면도주머니와 만년필을 내놓으며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었다. 《건강해서 복무를 잘하고 돌아와.》 그리구 아무 글이라도 많이 읽고 많이 쓰는걸 잊지 말아. 하지만 이 만년필축이 남아서 못쓰게 될 때까지 출판사에 글을 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줘. 《선생님, 선생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겠습니다.》 만년필을 나의 우두머리에 찢어주던 인자한 눈길에 석

글 허문길, 그림 김윤일 님의 초창에 나는 눈곱이 화근해올랐다. 쌀알같은것들이 일시에 속눈썹에 맺혔다. 내가 며칠밤 바재이며 준비해왔던 청은 폭지도 뻤수 없었다. 너무도 절절하고 너무도 아름다운 선생님의 넘림과 지향앞에서 내가 제 나름으로 훑었다고 생각했던것들은 너무도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두고은 님과 고향을 그리는 그 고향하고도 정바른 마음에 어찌 재가루를 날릴수 있랴. 《선생님, 꼭 가겠습니다. 추당섬, 꽃동네, 마을입구에서 세번째 집... 가구말구요.》 나는 목메인 어조로 이렇게 약속하였다. X 그때로부터 무정한 세월은 하염없이 년월을 감고 덧감아갔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통일의 날만은 의연히 그냥 뒤쪽으로 밀려났다. 나는 군사부문에 이어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중앙기관에서 사업하게 되었다. 어느해 봄날 출장길에 고

향에 들린적이 있었다. 그때까지도 리재현선생님은 여전히 내가 다니던 기술학교(이후로는 고등중학교, 현재는 중학교로 바뀌어졌다.)에서 교편을 잡고 독신생활을 하고있었다. 나를 반기는 선생님의 얼굴은 어제날처럼 상냥하고 밝은 미소로 빛나고 목소리는 사뭇 유정하고 정겨웠다. 달라진게 있다면 하숙방이 두칸짜리 살림집으로 늘어났고 선생님의 옷차림새였다. 그것은 자주빛지고 리에 단복색치마를 즐겨입은 군 하였는데 색깔이 바뀌어져 밤빛치마에 진회색의 저고리를 입고계셨었다. 나는 그 옷차림에서 이전

같아졌다. 옷의 바뀌어진 색깔이 선생님께서 청순하고 희망차던 청춘시절을 알아간듯싶었던 것이다. 《아유, 온다는 소식두 없이. 평양에서 일을 한다는 소식을 종종 들군 해.》 《선생님, 세월이란 살갈다고들 하더니 참 빠르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칠칠하던 머리에도 흰오리가 생겨났군요.》 《호호... 자기도 이젠 서른줄을 썩 넘어가지 않나. 나도 이제 흰고개를 쳐다보거든.》 선생님은 여전히 나를 살뜰하게 불러주며 내 손목을 꼭 잡고 반가와 어쩔줄 몰라

먹던 이야기며 내가 서를 쓴 작품을 선생님이 학급마다 돌아가며 읽어주고는 우리 학교에서 쓴 작가가 나울것이라고 해서 우쭐해졌던 이야기... 가지말게 뻔어가는 이야기에 취해들던 나는 벽시계가 한결을 때릴 때에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선생님의 두손목을 감아쥐고 오래전부터 어머리에도 흰오리가 생겨났군요. 《호호... 자기도 이젠 서른줄을 썩 넘어가지 않나. 나도 이제 흰고개를 쳐다보거든.》 선생님은 여전히 나를 살뜰하게 불러주며 내 손목을 꼭 잡고 반가와 어쩔줄 몰라



보다 훨씬 무겁고 준수 하였다. 우리는 밤잠도 못 지내던 시절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을 보는것 같아 어쩐지 서